

월간 TSG

2023
05



2023 K LEAGUE TECHNICAL REPORT
TSG MONTHLY MAGAZINE



[TSG's 픽] 베스트 플레이어

**'2023 서울의 봄',
주인공**

나상호

K리그 월간 데이터·순위 01

K리그 월간 오버뷰 04

[TSG's 픽] 베스트 팀 06



K리그 유일 무패팀 '김포FC',
멈출 줄 모르는 적토마
고정운 감독의 쾌속질주

[TSG's 픽] 베스트 플레이어 14



'2023 서울의 봄',
주인공 나상호

[TSG's 픽] 베스트 매치 20



이정호의 '판 짜기'
vs 최원권의 '교체술'
... 효과는 굉장했다!

TSG 기술위원 칼럼 26

K리그 상무팀 감독 시절을 돌아보며.
<김태완 TSG기술위원>

TSG's TOPIC 30



더욱 완성된 '4-2-2-2',
경남FC는 K리그1을 향해
순항중



2023 K LEAGUE TECHNICAL REPORT
TSG MONTHLY MAGAZINE

발행처 | (사)한국프로축구연맹
데이터 | BEPRO11
기획 | K리그 TSG
편집 및 디자인 | Graphic Ratio(www.studio-ratio.com)
사진 | FPhotos
발행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46 축구회관 5층
발행일 | 2023년 5월 15일

· 이 책의 저작권은 (사)한국프로축구연맹에 있습니다.
· 이 책에 실린 사진은 FPhotos가 제공한 것으로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 (사)한국프로축구연맹의 사전 허가 없이 책 내용의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 이 책에 사용된 K리그 기록은 (사)한국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공식 기록과 BEPRO11의 K리그 부가 기록 기준에 따릅니다.

K리그 1 순위표

	경기 수	승점	승	무	패	득실
1 울산현대	10	25	8	1	1	10
2 FC서울	10	19	6	1	3	9
3 포항스틸러스	10	19	5	4	1	4
4 대전하나시티즌	10	17	5	2	3	1
5 제주유나이티드	10	14	4	2	4	0
6 광주FC	10	13	4	1	5	1
7 대구FC	10	13	3	4	3	-1
8 수원FC	10	12	3	3	4	-5
9 인천유나이티드	10	12	3	3	4	-4
10 전북현대	10	10	3	1	6	-1
11 강원FC	10	10	2	4	4	-4
12 수원삼성	10	2	0	2	8	-10

K리그 2 순위표

	경기 수	승점	승	무	패	득실
1 김포FC	9	21	6	3	0	11
2 경남FC	9	19	5	4	0	10
3 김천상무	9	18	6	0	3	4
4 FC안양	9	17	5	2	2	6
5 부산아이파크	9	16	4	4	1	5
6 성남FC	9	14	4	2	3	1
7 부천FC1995	9	13	4	1	4	2
8 전남드래곤즈	10	13	4	1	5	-3
9 충남아산FC	10	12	3	3	4	1
10 안산그리너스	9	9	2	3	4	-4
11 서울이랜드FC	9	7	2	1	6	-3
12 충북청주FC	10	6	1	3	6	-14
13 천안시티FC	9	1	0	1	8	-16

K리그 공격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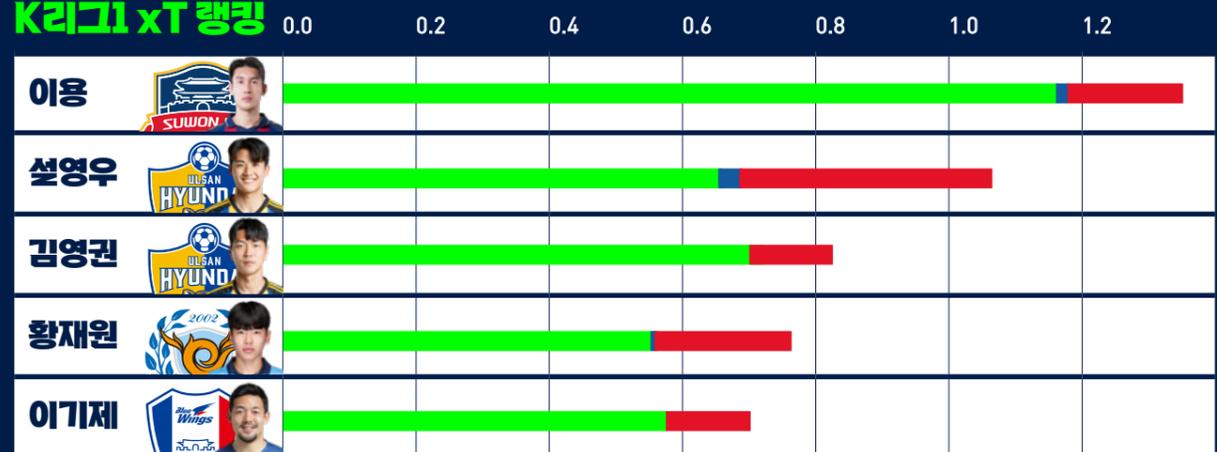
순위	팀	득점	기대 득점	실득점 - 기대득점	슈팅	점유율
1	FC서울	14골	8.8xG	+8.8골	67회	56.1%
2	울산현대	11골	9.4xG	+9.4골	78회	53.9%
3	대전하나시티즌	10골	7.7xG	+7.7골	64회	52.0%
4	수원FC	9골	7.8xG	+7.8골	79회	53.8%
5	제주유나이티드	9골	6.7xG	+6.7골	68회	46.0%

*PK득점 및 상대 자책골은 실득점, xG값에서 제외

K리그 수비 데이터

순위	팀	실점	기대 실점	선방지수	슈팅 허용	PPDA
1	인천유나이티드	5골	3.5xG	-1.33	7.5회	9.3
2	포항스틸러스	6골	5.4xG	-3.27	9.5회	7.0
3	전북현대	6골	6.1xG	-0.20	10.2회	8.9
4	강원FC	6골	7.3xG	+0.84	10.2회	9.9
5	울산현대	7골	8.7xG	+0.49	12.0회	7.8

K리그 xT 랭킹



Event Type — ● 패스 ● 드리블 ● 볼 운반

기대득점(xG) | 득점 슈팅 찬스가 득점으로 연결될 확률을 의미. xG값은 슈팅 위치 및 각도, 연결된 패스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결정됨

압박강도(PPDA) | 전방 압박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상대방 골라인으로부터 60% 지역 이내에서의 상대방 패스 시도 횟수 당 수비 시도 행위로 계산됨

기대 위험(xT) | 해당 선수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공격을 전개하였는가를 의미하는 지표. 팀의 공격 전개에 많은 관여를 할수록 수치 증가

K리그2 공격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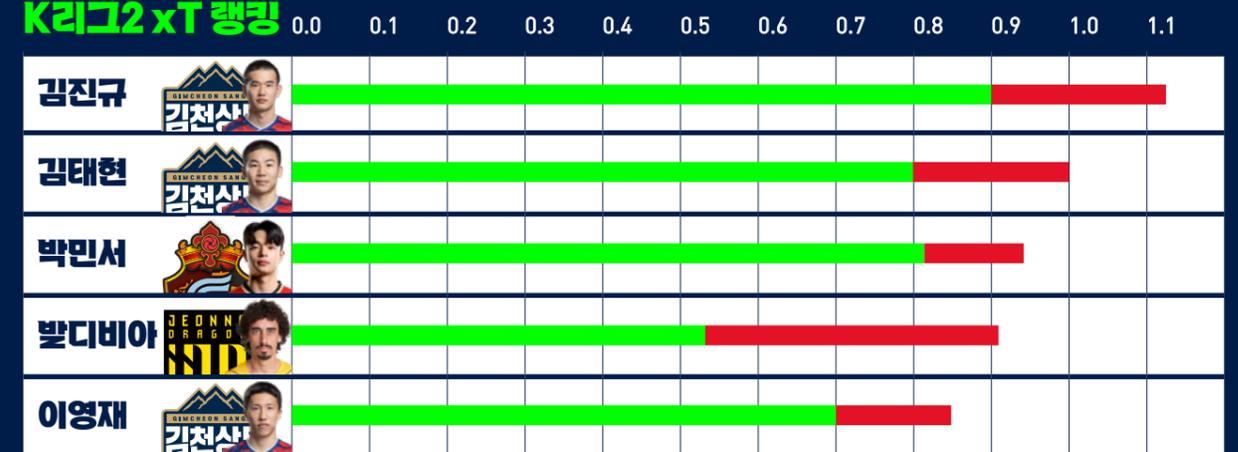
순위	팀	득점	기대 득점	실득점 - 기대득점	슈팅	점유율
1	FC안양	11골	9.6xG	+0.4골	78회	52.5%
2	전남드래곤즈	11골	9.1xG	+1.9골	78회	52.9%
3	충남아산FC	10골	5.5xG	+3.5골	58회	39.6%
4	성남FC	10골	4.7xG	-4.3골	55회	48.7%
5	김천상무	9골	8.7xG	-0.3골	95회	63.3%

*PK득점 및 상대 자책골은 실득점, xG값에서 제외

K리그2 수비 데이터

순위	팀	실점	기대 실점	선방지수	슈팅 허용	PPDA
1	부산아이파크	3골	6.1xG	+1.14	12.5회	8.2
2	김포FC	4골	5.9xG	+1.68	11.0회	8.2
3	경남FC	5골	6.7xG	-0.14	13.0회	8.5
4	김천상무	6골	6.2xG	-0.94	10.7회	6.3
5	FC안양	7골	4.8xG	-0.13	9.2회	7.1

K리그2 xT 랭킹



Event Type — ● 패스 ● 드리블 ● 볼 운반

K LEAGUE OVERVIEW

K리그의 4월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K리그1에서는 수원을 제외한 모든 팀들이 서로가 서로를 잡으며 극악한 먹이사슬을 연출했다. 특히, 4월 마지막 경기서 인천이 포항에게 승리하며 더 이상의 무패행진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편 K리그2에서는 ‘프로 2년차’ 김포가 거대한 돌풍을 일으켰다. ‘9경기 6승 3무’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선보이며 K리그2 정상 자리에 우뚝 올라섰다.



‘익수불’의 탈바꿈, K리그1 정상을 향해

지난 3년간 중하위권에 머물렀던 서울이 이번 시즌 선두권에 올라 있다. 2위 자리에 위치해 1위 울산을 승점 6점 차이로 쫓고 있다. 이번 시즌 서울은 작년에 비해 수비 쪽에 무게 중심을 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점유율이 낮아졌으며, 수비 시에 보이는 압박 강도도 약해진 추세다. 대전과 강원에게 패배해 기세가 꺾이려는 듯 했으나 마지막 수원FC전에서 3-0 완승을 거둬 4월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제주, 4월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

한편 제주는 4월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다. 지난 3월까지만 하더라도 강등권에 위치한 팀이었으나 4월 한 달 만에 순위를 5위까지 끌어 올리는데 성공했다. 제주의 4월 성적은 6경기 4승 2패. K리그1에서 울산 다음으로 가장 많은 승점을 딴 팀이다. 특히 골키퍼 김동준의 활약이 가장 눈에 띄었다. 김동준은 4월 K리그1에서 가장 높은 선방 지수(4.21)를 기록하며 팀을 위기에서 여럿 구해냈다.



전북의 반등은 언제부터

전북에게는 참으로 힘든 4월이었다. 4월 6경기서 2승 4패를 기록해 강등권인 10위 자리까지 추락하고 말았다. 4월 전북의 부진이 더욱 뼈아픈 이유는 홈 전주성에서만 3패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전북은 홈에서 맞이한 4경기 중 6R 인천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패배했다. 지난 시즌 전북의 전체 홈 패배 수가 3패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뼈아픈 기록이다. 전북에게는 하루 빨리 결정적인 분위기 반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서운 2년차’ 김포의 무패행진

K리그2에서는 김포가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무려 9경기 6승 3무의 성적이다. K리그를 통틀어 경남과 함께 유일한 무패행진 구단이다. 이번 시즌 김포의 최대 강점은 수비 조직력이다. 지난 9경기서 단 4골만을 허용하며 리그 최소 실점 팀에 이름을 올렸다. 기대 실점 수치도 가장 낮다. 더욱 눈에 띄는 점은 경기 시작 70분 간 실점을 허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K리그2 판도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2년차’ 김포가 서있다.



또 하나의 무패팀 경남, 설기현 감독의 승격도전은 순항 중

경남과 설기현 감독이 어느덧 K리그2 4년차를 맞이했다 시즌 첫 9경기에서 무패를 거둬 K리그2 2위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경남은 이번 시즌에도 화끈한 공격 축구를 선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전술 컨셉은 지난 시즌과 유사하다. 다만 팀의 핵심 공격수였던 티아가가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력이 녹슬지 않았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경남과 설기현 감독의 4번째 승격 도전은 성공신화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



충북청주, 힘들고 힘겨웠던 4월

한편 충북청주의 4월은 패배의 소식으로 계속됐다. 리그 6경기서 1무 5패를 기록해 천안과 함께 가장 좋지 않은 4월을 보낸 구단이 됐다. 충북청주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점이다. 4월 6경기에서만 15실점을 기록하며 12위까지 추락하고 말았다. 최윤겸 감독은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 강력한 수비와 몸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는 마인드다.”라고 언급하며 충북청주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K리그 신입생들의 적응기는 험난해보인다.



K리그 유일 무패팀 '김포FC', 멈출 줄 모르는 적토마 고정운 감독의 래속질주

'2년차 징크스'라는 표현이 있다. 신인으로서 첫 번째 시즌을 성공적으로 끝낸 후 두 번째 시즌에 부진하는 현상을 '2년차 징크스'라고 한다. 프로 2년차 신인 김포에게 '2년차 징크스'는 그저 먼 얘기에 불과한 것 같다.

고정운 감독이 풀어놓은 거친 야생마들 : 많은 활동량과 고강도 압박

이번 시즌 김포의 최대 강점은 수비력이다. 현재까지 치러진 9경기에서 단 4골만을 허용하며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K리그1까지 통틀어 보더라도 5골 미만의 실점만을 허용한 팀은 김포가 유일하다. 기대 실점 수치 역시 가장 낮다. (7.85실점) 이번 시즌 김포는 K리그에서 가장 견고한 수비력을 보이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4-3 김포의 전방 수비 형태.
3톱이 상대 MF를 수비 범위 안에 두며 압박을 시작한다.

김포는 개막 두 달이 넘는 현재까지 단 한 번의 패배도 거두지 않고 있다. 경남과 함께 K리그 1, 2 유일 무패팀이다. 시즌 개막을 맞은 3월에는 한 달간 무실점을 기록했으며,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한 4월에는 4연승을 거두며 김천의 1위 자리를 탈환하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김포의 돌풍은 '활동량'과 '압박'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다. 객관적 전력상 열세에 놓인 팀임에도 뒷선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통해 상대 빌드업을 제한하는 것이 김포의 최대 특징이다. 무게중심을 내려서 공간을 지키는데 집중했던 지난 시즌과 크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고정운 감독은 "남들보다 뛰어난 활동량, 그리고 그 활동량을 유지하는 체력이 우리의 비결 아닌 비결"이라고 언급하며 김포의 최대 강점을 활동량으로 손꼽았다.

김포는 압박 상황에서의 밸런스와 기동력이 매우 뛰어난 팀이다. 이 중 흥미로운 지점은 전방 3톱 자리다. 주닝요, 파블로, 루이스로 구성된 외국인 자원들이 뛰어난 압박 타이밍과 영리한 움직임을 통해 수준 높은 전방 압박을 구사한다. 특히 중앙 공격수 자리에 위치한 파블로는 상대 빌드업을 측면으로 몰아가는 '채널링'에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 압박하는 과정에서 시도하는 스프린트가 매우 빠른 선수다. 10R 김천전에서 만들어낸 선제골 장면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이다. 김천의 왼쪽 윙백 김륜성이 중앙 김재우에게 백 패스를 건넨 상황. 파블로는 김천의 빌드업을 왼쪽으로 몰아내기 위해 빠른 스프린트를 끊었으며, 이때 나온 김재우의 터치 미스를 놓치지 않고 볼을 탈취해내 팀의 선제골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김포는 3-4-3, 5-2-3 대형을 통해 공격 1/3 지점에서부터 수비를 시작한다. 3톱은 상대 3선 미드필더를 수비 범위 안에 두며 점진적인 압박을 가한다. 상대 미드필더가 볼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김포 3톱의 1차 목적이다. 중앙으로 좁은 간격을 형성해 상대 미드필더의 공간을 제한하며, 센터백이 전진 패스를 연결하지 못하게끔 한다. 이를 통해 상대의 중앙 빌드업 옵션을 막았다면 측면은 김포의 양 윙백이 담당한다. 김포의 두 윙백은 전방 수비 시 언제든지 1선으로 달려 나와 상대 측면 선수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포의 3톱이 상대 미드필더에 대한 1차 목적을 달성했다면, 다음 단계는 3톱 중앙 윙어가 상대 센터백을 압박하는 것이다. 양 윙어가 상대 두 센터백을 1v1로 압박하고 중앙 공격수는 그보다 낮은 지점에 머물러 상대 미드필더를 수비하는 형태다. 이때 김포의 양 윙어는 상대 센터백을 중앙 쪽으로 유도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이 경우 김포가 3-4-1-2에 가까운 대형을 형성하게 되어 측면보다 중앙에 많은 숫자를 두게 된다.

만약 상대가 백3 대형으로 빌드업을 전개한다면 김포의 3톱이 상대 센터백을 1v1로 수비하는 구도를 보인다. 이 경우 김포의 중앙 공격수가 상대 중앙 센터백을 압박하기 때문에, 기존의 3-4-3 대형 그대로를 유지하며 압박을 전개하는 장면이 많았다. 상대가 몇 명의 센터백으로 빌드업을





[TSG's 픽] 베스트 팀

전개하느냐에 따라 전방 3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 것이다.

김포는 후방 수비 시에도 매우 견고한 모습을 보인다. 지난 시즌과 같이 후방으로 내려설 때면 5-4-1 대형을 형성하지만, 최후방 백5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 미드필더 라인과의 간격을 최소화 하는 것이 작년과 달라진 모습이다. 전반적인 라인업 속도도 빨라졌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뒷공간이 벌어지는 탓에 상대 공격수 침투에 취약할 수 있으나 이번 시즌 김포의 센터백은 주력 면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시즌 김포는 후방 수비 시 타이트한 간격을 유지하며 상대의 롱 볼을 유도하는 수비를 매우 성공적으로 해내왔다.

이러한 김포의 수비 응집력은 실점 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즌 김포는 경기 시작 70분 간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은 팀이다. 다시 말해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진 경기 중반 시점(70분 이후)이 돼서야 비로소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사실이 '김포의 수비 집중력이 부족하다.'라는 결론으로 비춰져서도 안 된다. 김포의 실점 중 후반의 비중이 높을 뿐, 그 숫자(4) 자체는 리그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매우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김포의 가장 강력한 무기, '3톱의 콤비네이션 플레이'

한편 김포가 공격 시에 갖는 최대 강점은 '루이스-파블로-손석용/주닝오'로 이뤄진 3톱의 개인 기량이다. 김포의 3톱은 공격 1/3 지점에서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통해 상대 밀집 수비를 뚫어낼 수 있는 기량을 갖췄다. 루이스는 드리블을 통해 상대 수비를 휘저을 수 있고, 파블로는 수비-미드필더 라인 사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 선수다. 김포는 빌드업 시 매우 간결한 전개를 보인다. 중원을 거치지 않고 공격 1/3 지점으로 빠르게 볼을 투입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번 시즌 김포는 K리그2에서 2번째로 낮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단 44.4%의 수치며, 이보다 낮은 점유율을 기록한 팀은 충남아산(42.8%)이 유일하다. 이번 시즌 김포는 6R 충북청주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50% 이하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김포가 공격 1/3 지점으로 볼을 전개한 이후에는 3톱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다. 김포의 3톱은 볼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선수들이다. 언제든지 볼을 받기 위해 압박이 적은 공간으로 빠져 나오며, 자유로운 움직임을 통해 공격 진영에서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킨다. 특



김포의 5-4-1 후방 수비 형태. 수비 라인을 끌어 올려 미드필더 라인과의 간격을 최소화한다.



김포의 3톱이 공격 1/3 지점에서 시도하는 콤비네이션 플레이는 매우 위협적이다.





김포의 안양전 공격 전개 장면. 왼쪽 윙어 루이스가 볼을 받기 위해 좁히자, 밀선의 미드필더가 옵션을 만들어주기 위해 빠르게 뛰어 나갔다.

히 왼쪽 윙어인 루이스가 전반적인 공격 작업에서 큰 비중을 맡는다. 이번 시즌 루이스는 팀 내에서 가장 높은 기대 위협(xT) 수치를 기록한 선수다.

김포의 3톱이 공격 1/3 지점에서 보이는 최대 강점은 매우 간결하고 위협적으로 전개하는 콤비네이션 플레이다. 최소한의 볼 터치로 상대 밀집 수비를 벗겨내며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인다. 김포는 K리그2에서 가장 낮은 '시퀀스당 패스 횟수'와 '시퀀스 소요 시간'을 기록하면서도 3번째로 높은 득점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15골)

3톱이 이러한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자주 만들기 위해서는, 공격수들이 상대 진영 깊은 곳에 최대한 머무를 수 있게 해야 한다. 본인의 자리를 자주 이탈한다면 서로 간의 간격이 벌어져 위협적인 패스를 주고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김포와 같이 공격 상황에서의 연결성이 매우 낮은 팀은 공격수들이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김포는 이러한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자주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3-4-3의 양 윙백과 두 중앙 미드필더들이 매우 폭 넓게 움직이는 편이다. 허리 라인에 위치한 4명의 선수들이 넓은 활동 범위를 책임져주면, 3톱이 전방에만 집중하고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 여기서도 고정된 감독이 김포의 강점으로 내세운 '활동량'의 요소가 드러난다.

김포의 미드필더와 윙백은 대개 3톱의 볼에 대한 반응에 맞춰 움직이는 편이다. 3톱이 전방에서 볼을 받기 위해 자유롭게 움직인다면, 윙백과 미드필더는 이에 대한 서포트 움직임을 빠르게 가져가 3톱의 옵션을 만들어주는 패턴이 많다.

가령 안양전 공격 장면을 되돌아보자. 김포의 골키퍼가 롱킥을 처리한 상황. 왼쪽 윙어 루이스가 볼을 받기 위해 안쪽으로 이동하자 미드필더인 장윤호가 빠르게 쇄도해 측면 자리를 메꿔줬다. 이후 볼은 중앙으로 향했고, 이번에도 오른쪽 윙어 주닝요가 패스를 받기 위해 아래로 방향을 틀자 김포의 윙백이 빠르게 전진해 오른쪽 윙어 자리를 메꿔주는 모습을 보였다. 3톱이 볼을 받기 위해 움직인다면 미드필더와 윙백이 활동량을 통해 그 위치를 메워주고 옵션을 만들어주는 형태를 보인 것이다.

우승이나 승격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난 두 달간 김포가 보여준 행보는 팬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지난 시즌 1,200명대의 평균 관중이 2,000으로 증가했다는 것이 그 기대감에 대한 반영이라 볼 수 있다. 올 해 2023년 봄에는 적토마 군단의 '쾌속 질주'가 펼쳐졌다. 김포FC의 돌풍은 K리그 팬들에게 김포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켜주기에 충분했다.



'2023 서울의 봄', 주인공 나상호

지난 시즌 서울의 최대 문제는 '득점력'이었다. 볼 소유에 큰 비중을 둔 전술을 앞세워 2015년 이래 K리그 역대 최고 점유율 수치를 기록했으나 팀 득점은 고작 43골에 그치고 말았다. 강등팀 성남 다음으로 적은 득점이다. '골 가뭄'에 시달린 서울은 지난 시즌 단 11승만을 거두며 하위권인 9위 자리에 만족해야 했다.



[TSG's 픽] 베스트 플레이어

그런 서울이 올 시즌에는 작년의 공격 문제를 해결한 듯하다. 올해 첫 10경기에서 21득점을 기록하며 리그 2위 자리에 당당히 올랐다. K리그1, 2 무대를 통틀어 4월까지 20득점 이상을 기록한 유일한 팀이다. 다시 돌아온 '우승 경쟁팀' 서울의 중심에는 나상호가 있다. 나상호는 4월 한 달 간 6골을 몰아넣으며 리그 득점왕 선두 자리를 차지했다.

탈바꿈에 성공한 서울, 그에 맞춰 변화한 나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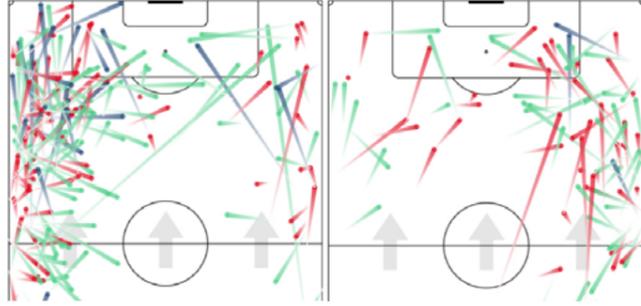
이번 시즌 서울은 리그 전체로 비교해 보더라도 볼 소유와 패나 거리가 먼 팀이다. 점유율은 리그에서 6번째로 높은 수치(51.5%)며, 공격 지역 점유율은 단 9위에 불과하다. (46.4%) 지난 시즌 리그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61.9%)과 공격 지역 점유율(63.8%)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올해에는 매우 간결한 형태로 변화한 것이다.

서울의 이러한 전술적 변화에 따라 이번 시즌 나상호의 플레이 스타일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우선 주요 포지션이 왼쪽에서 오른쪽 winger로 바뀌었다. 이는 이번 겨울 왼쪽 winger 임상협이 영입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포지션 변화로 보인다. 지난 시즌에는 나상호가 왼쪽 winger를 맡고 조영욱과 강성진이 팀의 오른쪽 winger 자리에서 활약했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나상호가 기여하는 공격적 기여의 형태다. 이번 시즌 나상호는 패스와 드리블의 비중을 줄이고 볼 운반을 통해 많은 공격적 기여를 보이기 시작했다. 지표상으로 보자면 작년에 비해 볼 운반의 비중이 무려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지난 시즌 나상호의 기대 위협은 패스 60.8%, 드리블 17.8%, 볼 운반 21.3%의 비중이었으나, 이번 시즌에는 해당 지표가 패스 52.08%, 드리블 5.5%, 볼 운반 42.3%의 수치로 변화했다.

이는 이번 시즌 서울의 전반적인 무게 중심이 경기장 아래 쪽으로 향하면서 생긴 변화라 볼 수 있다. 올해 서울은 지난 시즌에 비해 공격수들이 전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넓어졌다. 평균적으로 볼을 소유하는 지점이 낮아졌을뿐더러 (공격 지역 점유율 63.8% → 46.4%), 전반적인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경기 중 수비 상태에 머무르는 시간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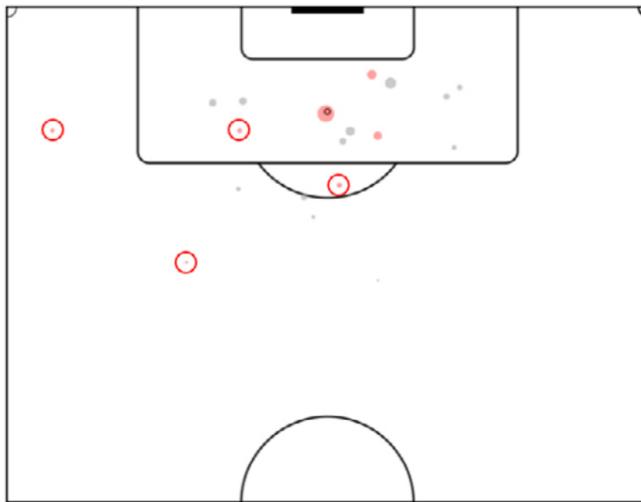
나상호는 서울의 이러한 변화에 맞춰 올해 '볼 운반'을 통해 팀에 많은 기여를 하기 시작했다. 볼 소유 지점이 낮아져 전방까지 볼을 운반해야 할 상황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은 나상호 이외에 '볼 운반'에 강점을 보이는 선



나상호의 2022시즌 마지막 10경기 기대 위협 지표(원)와 2023시즌 첫 10경기 기대 위협 지표 (우)



나상호는 빌드업과 역습 상황에서 볼 운반을 통해 서울 공격의 핵심이 됐다.



나상호의 이번 시즌 슈팅맵. 점의 크기는 기대 득점의 높낮이를 의미한다. 매우 적은 기대 득점 속에서 기록한 골들이 많다.

수가 마땅치 않은 상태다. 황의조와 일류첸코는 전방에서 피지컬을 통해 영향력을 낼 수 있는 선수들이며, 팔로세비치는 빠른 기동력과 거리가 먼 편이다.

서울 역시 나상호의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왼쪽의 임상협을 수비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이번 시즌 서울은 공격 시 백4 형태를 갖추나 수비시에는 백5 대형으로 전환한다. 상대의 폭 넓은 공격에 대응하고 최후방에 숫자를 확보해 안정성을 갖추기 위함이다. 서울은 백5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로 왼쪽 원어인 임상협을 원백 자리로 내리는 형태를 보였다. 이 경우 나상호가 보다 높은 위치에 머물러 수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며, 역습에 용이한 위치를 점해 스피드와 공격성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가능했다.

이번 시즌 나상호는 팀의 변화된 플레이 스타일에 본인의 장점을 잘 녹여낸 케이스다. 기대 위협 지표를 보자. 지난 시즌에 비해 낮은 지점에서 공격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전반적인 선이 굵어졌다. 기대 위협의 횟수가 적어진 것은 서울의 볼 소유 시간 자체가 확연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기대 위협을 얼마만큼 기록했냐'가 아닌 '기대 위협을 어떻게 기록했느냐'다. 이번 시즌 나상호는 본인만의 뚜렷한 강점을 통해 서울의 공격 과정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고조에 오른 나상호의 '결정력', 서울이 찾던 마지막 퍼즐

이번 시즌 나상호가 가장 크게 발전시킨 능력은 슈팅과 결정력이다. 현재 나상호는 K리그에서 기대 득점 대비 가장 높은 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다. 단 2.06xG의 기대 득점 속에서 6골(PK 제외)이나 기록했다. 나상호의 2.06xG는 리그 내에서 14번째로 높은 기대 득점 수치다. 14번째로 높은 득점 기회를 부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은 골을 넣었다는 것이다. 득점 2위 자리에 위치한 5골의 루빅손은 2.46xG의 기대 득점 수치다. 나상호의 이러한 마무리 능력은 4월로 들어서며 큰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나상호는 6경기를 치른 4월에 본인의 전체 7골 중 6골을 기록했다. 경기당 1골을 넣은 셈이며, 9R 강원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했다. 우선 슈팅 정확도 자체가 크게 좋아진 모습이다. 이번 시즌 나상호는 전체 7골 중 3골을 박스 바깥에서 기록했다. 구석을 노리는 정확한 킥을 통해 상대 골키퍼의 허점을 노렸다. 지난 시즌 나상호는 박스 바깥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공격수였다. 전체 49번의 슈팅 중 19개를 박스 바깥에서 때릴 만큼 적극적이었으나 정확도가 따라주지 못했다. 나상호는





[TSG's 픽] 베스트 플레이어

이 19개 중 7개의 슈팅만을 유효 슈팅으로 연결했다.

원발 슈팅 역시 지난 시즌보다 더욱 정확해졌다. 주 포지션을 오른쪽 윙어로 바꾸면서 원발 슈팅에 대한 시도도 늘어났다. 나상호는 "오른발로만 하면 상대 수비에 간파당하기 쉽다. 다양한 위치에서 슈팅을 때리려면, 오른발로만 하면 안 된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시즌 원발 슈팅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가령 8R 수원과의 슈퍼매치에서 넣은 득점이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시다. 박스 안에서 이뤄진 나상호의 힐 패스가 상대 수비에 맞고 흘러 나온 상황. 나상호는 이를 지체 없이 왼발로 때려 골대 구석으로 넣는데 성공했다. 해당 슈팅은 단 0.06xG 만의 수치를 지닌 기대 득점이었다. 100번의 슈팅을 시도할 경우 6골만이 들어갈 만큼 희박한 상황에서 원발 슈팅을 성공시켰다는 것이다.

이번 시즌 황의조의 합류 역시 나상호 분석에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황의조는 슈팅과 오프 더 볼을 주요 강점으로 내세우는 공격수이나, 서울에서는 연계 면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다. 전방에서 상대 수비로부터 볼을 지키고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이번 시즌 서울에서는 상황에 따라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며 공격 진영에서의 유기성을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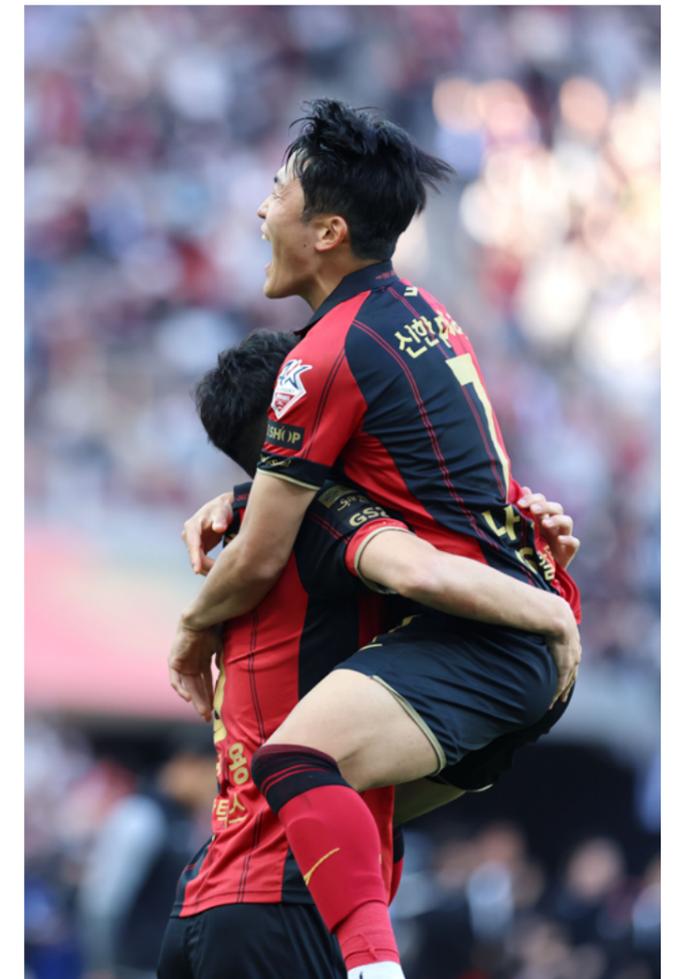
나상호는 황의조가 이러한 포스트 플레이를 담당해준 덕분에 최전방에서 적지 않은 득점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는 황의조가 나상호보다 더욱 높은 위치에 배치되는 것이 기본이다. 황의조가 상대 수비를 올려준다면 나상호가 측면이나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간을 얻는 형태다. 그러나 서울이 공격 1/3 지점으로 공격을 전개했을 때면 종종 황의조가 1.5선으로 내려와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존재했다. 이 경우 윙어 나상호나 임상협이 1선에 머물며 득점을 노리는 위치를 점했다. 역습 시에도 황의조가 상대 수비로부터 볼을 지킨 후 침투하는 나상호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는 패턴이 꽤나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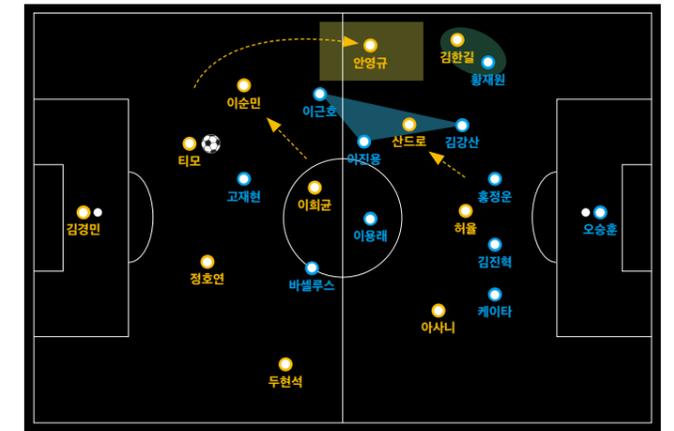
지난 시즌 서울의 최대 문제는 골 결정력이었다. 50.8xG의 기대 득점을 기록했으나 실 득점은 단 43골에 그쳤다. 지난 시즌 그 누구도 서울보다 기대 득점 대비 낮은 실 득점을 기록한 팀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즌 나상호는 서울에게 가장 필요했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라 할 수 있다.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도 승리하지 못했던 주요 원인인 '결정력'을 나상호가 책임져주고 있는 것이다.

나상호는 현재 K리그에서 주어진 기회 대비 가장 높은 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선수다. 빌드업 상황에서 수행하는 '운반책' 역할 또한 K리그 최고 수준이다. 경기장을 찾는 3만 명의 평균 관중 수와 이에 보답하는 우승권 순위를 보면 가히 '서울의 봄'이 찾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 나상호는 다시 찾아온 서울의 봄 중심에서 만개하고 있다.



황의조가 상대 수비로부터 볼을 지켜주고, 나상호가 침투해 득점 기회를 노린다.





광주가 측면 프리맨을 만드는 방식. 중앙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빠진다면, 대구의 원어를 상대로 2v1 수적 우위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정효의 '판 짜기' VS 최원권의 '교체술' ... 효과는 굉장했다!

2년 만에 돌아온 달빛 더비의 주인공은 이정효 감독과 최원권 감독이었다. 경기 내내 치열한 전략 싸움을 주고 받으며 최종 스코어 4-3이라는 명승부를 만들어냈다. 전반전은 대구의 밀집 수비를 깨기 위한 이정효 감독의 '판 짜기 능력'이, 후반전은 흐름을 뒤엎기 위한 최원권 감독의 '교체술'이 빛난 경기였다. 이날 양 감독은 어떤 전술을 통해 서로를 공략했을까.

대구 밀집 수비를 깨기 위한 이정효 감독의 '판 짜기'

이날 광주는 대구의 밀집 수비를 깨기 위해 꽤나 변칙적인 공격 형태를 보였다. 빌드업시 2-4-4 형태를 기본으로 하되 센터백 안영규가 왼쪽 윙백 자리에, 미드필더 정호연이 최후방 센터백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공격 중 오른쪽 윙백 두현석은 전후방을 유동적으로 오가며 광주의 수 싸움을 도왔다. 두현석이 전진할 경우에는 3-2-5에 가까운 대형이 펼쳐졌다. 대구는 늘 그랬듯 5-4-1 수비 대형

을 통해 광주의 공격에 맞섰다. 광주는 이날 크게 2가지 지점을 공략하려 했다. 하나는 대구의 뒷공간이다. 광주는 본래 공격 라인의 적극적인 움직임 통해 수비-미드필드 라인 사이 지역으로 볼을 투입하는 팀이다. 이날 대구는 광주의 이러한 공격 옵션을 막기 위해 수비 라인 쪽에서 적극적인 대인 마크를 보였다. 광주는 공격 라인이 대인 마크에 잡힐 경우, 끊임없는 움직임을 통해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뒷공간으로 침투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광주가 보인 또 하나의 공략 지점은 측면 쪽에 프리맨을 만

드는 것이었다. 이날 광주는 중앙 미드필더의 측면 움직임을 통해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였다. 대구 백5의 경우 상대 공격 라인을 계속 마크해야 했던 탓에, 광주의 중앙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빠진다면 윙백과 함께 대구의 윙어를 상대로 수적 우위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했다. 광주는 주로 왼쪽 진영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윙백 자리에 위치한 안영규를 프리맨으로 만들었다. 중앙 미드필더 이순민은 빌드업 시 왼쪽 센터백 자리로 내려와 공격에 관여했다. 이순민이 내려온다면, 기존 윙백 자리에 위치한 안영규가 앞선으로 전진해 공간을 얻는 것이 가능했다. 이 경우 대구의 윙어 이근호가 왼쪽으로 이동한 이순민을 상대하게 되기 때문이다. 앞선에서는 광주의 윙어 김한길 이 대구의 윙백 황재원을 놀려줘 전진한 안영규가 공간을 얻을 수 있게끔 했다.



이날 광주의 공격 라인은 대인 마크를 잡힐시 끊임없는 움직임을 시도했다.



윙어 이근호가 산드로에게 끌려 중앙을 막으니, 전진한 윙백 안영규가 측면에서 공간을 얻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대구와 윙어 이근호가 이순민에게 끌려나오지 않고 지역을 지킨다면?" 광주는 이러한 수비 형태에 대응하기 위해 세밀함을 더했다. 왼쪽 진영으로 빌드업을 전개할 때면 공격수인 산드로가 순간적으로 볼을 받기 위해 내려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이 경우 이근호가 산드로에게 향하는 패스 루트를 막기 위해 중앙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다. 이근호가 중앙 쪽에 묶인다면 전진한 안영규가 자연스럽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광주는 이날 프리맨이 된 안영규를 계속 활용하며 대구의 수비 진영을 무너뜨렸다. 대구는 안영규에게 볼이 향한 때 황재원이 끌려나와 이를 수비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때 대구의 수비 라인이 벌어지게 된다면 광주의 공격수들에게 공간을 허용하고 말았다.

광주는 이날 경기 내내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빠져 수적 우위를 만들고 프리맨을 얻는다.'라는 공격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광주는 후방에서 대구의 압박을 맞을 때에도 이러한 패턴을 통해 공격을 풀어 나갔다. 광주는 모든 선수들이 각자의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은 채 이러한 구조를 활용했으며, 대구가 측면 숫자를 늘려 수적 우위를 형성하지 못할 때에는 순간적으로 벌어진 중앙 지역을 공략하기도 했다.

광주가 후반전에 넣은 팀의 3번째 득점은 이러한 전술적 맥락에서 완벽히 이뤄진 것이라 볼 수 있다. 광주가 왼쪽에서 오른쪽 진영으로 볼을 전환시킨 상황. 광주의 중앙 미드필더가 볼을 받기 위해 오른쪽 측면으로 완전히 빠지자 윙백 두현석이 중앙으로 이동해 서로 간의 포지션을 바꿨다. 이후 광주는 자연스럽게 오른쪽 측면에 무게 중심을 두게 됐으며, 대구의 수비 진영이 측면으로 쏠리자 중앙의 두현석이 침투해 팀의 공격 옵션을 만들어줬다. 이날 광주의 '전술적 구조', '유기적인 포지션 스위칭', '전방의 마무리 작업' 까지 삼박자가 모두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는 장면이었다. 광주는 이 골을 통해 3-0을 만들어내며 이날 경기의 주도권을 완벽히 가져오는데 성공했다.

경기 흐름 뒤얽은 최원권 감독의 '교체술'

한편 대구는 이날 광주의 수비를 깨기 위해 '바셀루스 윙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광주는 상대가 측면으로 볼을 전개할 때 강한 압박을 가해 볼을 탈취하려는 팀이다. 대구는 공격의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바셀루스를 윙어 자리에 배치해 측면에서 강하게 펼쳐지는 광주의 압박을 뚫어내려 했다. 광주 역시 이날 기존의 백4가 아닌 백5 수비 대형을 꺼내 들어 대구의 폭 넓은 공격에 대응했다. '김





한길-이순민-안영규-티모-두현석'이 최후방 라인을 구성하는 5-4-1 수비 대형이었다.

대구의 아이디어는 명확하다. winger 바셀루스를 프리맨으로 만들어 광주의 측면 압박을 풀어내자는 의도였다. 광주가 측면 압박을 가할 때면 왼쪽 윙백 케이타와 winger 바셀루스가 순간적으로 서로 간의 위치를 바꿨다. 케이타는 전방으로 이동해 광주의 오른쪽 윙백을 묶었으며, 바셀루스는 빠르게 내려와 후방에서 공간을 얻었다. 광주가 측면 미드필더를 통해 대구의 센터백을 압박한 탓에 바셀루스가 내려온다면 프리맨이 되는 것이 가능했다.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바라보자면 대구가 측면 압박을 당할 때 순간적인 3v2 수적 우위 구도를 활용하려 한 것이다. 공격 라인의 다른 쪽에는 이근호와 고재현을 배치하며 광주의 뒷공간을

계속해서 노렸다.

반전 대구는 이러한 공격 형태를 통해 프리맨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으나, 이후 공간을 얻은 바셀루스에게 볼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광주의 빠른 측면 압박에 번번히 막히며 공격 전개에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광주 역시 이날 기존의 백4가 아닌 백5 수비 대형을 들고 나오며 양 측면으로 빠른 대응을 내서기가 매우 수월했다.

바셀루스 카드가 막힌 대구는 공격 전개가 단순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근호와 고재현을 겨냥한 다이렉트 플레이를 시도하는 빈도가 많아졌으며, 중앙 미드필더 이진용과 이용래는 광주의 강한 압박에 고립되고 말았다. 전반전 공격 전술이 막힌 최원권 감독은 후반전에 돌입하자마자 이근

호를 빼고 세징야를, 바셀루스를 빼고 에드가를 투입하며 본격적인 공격을 나서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전술 변화는 62분 시점에 일어났다. 최원권 감독은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이용래를 빼고 박세진을 투입하면서 공격시 4-2-3-1 대형으로 전환했다. 에드가가 공격수 자리에 서고, 케이타와 세징야, 고재현이 공격 2선에 위치한 형태였다. 두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는 박세진과 이진용이 섰다.

후반전 대구는 세징야를 중심으로 중앙에서 공격을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세징야는 2-3선을 자유롭게 오가며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했다. 중앙 미드필더 라인까지 내려와 팀의 공격을 주도하기도 했으며, 전방으로 이동해 직접 볼을 받아내기도 했다. 세징야는 주로 오른쪽 진영으로 전방을 넘나들며 에드가와 고재현을 지원하는 형태를 보였다. 박세진이 들어선 대구의 중원은 광주의 수비 진영을 상대로 볼을 소유하기 시작했다. 3득점 이후 급격히 압박 강도가 낮아진 광주는 대구의 이러한 중원 볼 소유 형태에 대응하지 못했다. 미드필더 라인이 벌어져 세징야에게 공간을 허용하는 일이 많았으며, 3선의 박세진과 이진용에게도 제대로 압박하는 일이 많지 않았다. 후반전 광주는 수비 집중력이 크게 떨어진 모습을 보이며 대구의 중원 전개에 계속 공략당하고 말았다.

이날 '4-3'이라는 폭발적인 스코어 이면에는 이정호 감독과 최원권 감독 간의 치열한 전략 싸움이 있었다. 이정호 감독은 변칙적인 전술 운영을 통해 대구의 밀집 수비를 완전히 뚫어내는데 성공했다. 센터백 안영규를 왼쪽 윙백 자리에, 미드필더 정호연을 센터백 자리에 배치하면서 공격의 변칙을 줄 것이라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날 광주는 '필드 위 수적 우위'와 '유기적인 포지션 스위칭'이라는 강점을 잘 살려 대구 원정에서 역사적인 4골을 뽑아냈다.

한편 최원권 감독은 전술 변화를 통해 광주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틈을 성공적으로 파고들었다. 전반전 '바셀루스 winger' 카드를 통해 측면에서부터 광주의 압박을 풀어나려 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자 세징야와 박세진을 투입하며 광주의 중원을 제대로 공략하는데 성공했다. 대구는 62분 박세진이 투입되고 난 후, 정확히 20분 만에 3골을 몰아 득점하며 추격의 불씨를 살렸다.

달빛 더비는 그 발생에서부터 특색이 있다. 우승 경쟁, 역사적 라이벌, 근접한 지연 연고 등이 아닌 순수하게 양 팀이 펼친 수차례 명승부로 인해 생겨난 K리그 신화 더비 매치이다. 만났다 하면 대략득점 명승부를 펼치는 두 팀이기에, 향후 K리그를 대표하는 더비 매치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대구의 3번째 골 전개 장면. 대구의 수비가 측면으로 쏠려 간격이 벌어지자, 중앙의 두현석이 침투해 공격 옵션을 만들어줬다.



대구의 전반전 공격 형태. 광주의 측면 압박이 가해질 때, winger 바셀루스가 내려와 프리맨을 얻었다.



대구의 후반전 공격 형태. 4-2-3-1의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위치한 세징야는 전-후방을 자유롭게 오가며 광주의 벌어진 수비 간격을 공략했다.



K리그 상무팀 감독 시절을 돌아보며.

2023 K리그 TSG기술위원
김태완

상무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별한 축구팀이다. 프로리그에 참가하고 있지만 선수들은 전원 군인 신분이며, 국가대표급 선수들 모두가 입단을 원하지만 팀을 떠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 일반적인 프로팀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과 운영방식이기에 그 속사정을 아는 사람 또한 많지 않다. 5월호 TSG기술위원 칼럼에서는 상무팀에서만 무려 20년 이상 몸담은 김태완 기술위원의 '상무 이야기'를 담아본다.

‘입대’와 ‘전역’을 상대하는 방법

상무팀이 갖는 가장 큰 제약은 단연 ‘입대와 전역’이다. 시즌 전후로 상당수가 입대하고, 또 상당수가 전역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전력 변화를 매년 맞이해야 한다.

우선 입대부터 얘기해보자. 입대의 경우 포지션별 선수 선발이 불균형적으로 이뤄질 때가 많다. 상무팀은 포지션별 선발 기준을 FW, MF, DF, GK식으로 나눠 입단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원칙상 상무팀의 감독이 국군체육부대 선수 선발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기준으로 분류되어 받다 보면 특정 포지션에 선수들이 몰릴 때가 많다. 지난 2022년에는 DF 부문에 센터백 선수들만 6명(정승현, 박지수, 김주성, 하창래, 연제운, 송주훈)이 몰리면서, 4백을 사용하는 경우 남은 4명의 센터백은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입대한 새로운 선수들은 아무리 입대 전 훌륭한 기량을 보였더라도, 즉시 주축으로 투입하지는 않는다. 훈련소에서 체육부대로 전입된 직후 가장 준비된 선수들부터 조금씩 출전을 시킨다. 팀 분위기에 최대한 빠르게 적응시켜 경기 감각을 끌어 올리는 것이 상무팀 감독으로서 신입 선수들에 취하는 최우선 과제다. 이러한 적응기를 보내게 하면서, 나 또한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점차 파악을 한다. 나는 상무 감독시절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다. 입대 전 원소속팀에서 보여줬던 기량이나 국가대표 경력은 참고사항으로만 삼았다. 상무팀을 축구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고자 한다면 능력 이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었다. 반면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자’는 식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으로 대신 했다. 더 나아가, 필드 위 퍼포먼

스와 관계없이 평소 훈련을 소홀히 한다면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는 것을 기조로 삼았다.

그렇게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선수들의 전역 시기가 찾아온다. 감독 입장에서는 선수들의 1년 6개월(군 복무기간)이 꽤나 빠르게 흘러가버린다. 전역은 언제나 마음 아프다. 이제 겨우 합을 맞추어 서로를 이해하고, 재밌는 축구를 하게 될 즈음에 선수들의 전역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은 어렵지만, 이 또한 상무팀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시즌 중 전역이 가장 뼈아프다. 팀의 핵심 선수가 시즌 중 전역해버린다면 어마어마한 전력 손실로 이어져버리기 때문이다. 지난 2022시즌이 가장 그랬다. 강등권 경쟁이 한창 치열하던 지난 9월, 팀의 핵심 자원이었던 조규성과 정승현이 전역을 하고 말았다. 조규성이 사라지자 팀의 전반적인 득점력이 떨어졌으며, 정승현이 빠진 수비진은 리더를 잃고 말았다. 핵심이 둘이나 빠지니 팀이 9월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흔들렸던 경험이 있다.

상무팀 감독의 주적(主敵): 선수들의 동기부여

상무팀의 특성상 해결하기 어려운 또 다른 문제는 선수들의 동기부여다. 상무는 가장 확실한 동기부여 수단인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팀이다. 여기에 휴가도 제한되어 있어 직접적인 동기부여를 불러 넣어주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끔씩 “경기에 이겨 부대장님이 기분 좋으면 휴가를 추가로 주시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받는데, 정확하게는 그러한 휴가 또한 군 복무기간 내에서 정해져 있는 포상휴가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선수들에게 셀프 모티베이션의 방법을 독려했다. 수당이나 휴가와 같은 물질적 보상이 불가능한 신분 임은 스스로 인정해야하고, 전역한 후에 K리그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라고 당부했다. 상무팀이 프로리그에 참가하는 만큼 매 경기 자신의 가치를 선보일 수 있으니, 이곳에서의 활약으로 전역 후 좋은 대우를 받는 선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고 조언했다. 나 또한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못했던 플레이나 하고 싶었던 역할을 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었다.

물론 그럼에도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 더욱 힘든 선수들이 있다. 바로 전역이 임박한 선수들이다. 전역이 임박한 선수들은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소속팀에 돌아갈 날이 머지않았기 때문에, 남은 군복무 기간 중 부상을 걱정하거나 더 이상 성장기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상무팀 감독으로서 팀을 위해 이성적 판단을 우선시 했다. 이미 마음이 떠나 있는 선수들은 도리어 남은 선수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때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 선수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전역 1-2달 전부터는 가급적 경기에서 배제시키고, 남은 휴가 일수를 계산하여 되도록 빠르게 부대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다.

돌이켜보면 좋은 성적은 나와 선수들 간의 신뢰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한다. 내가 바라는 모습이 선수들에게 잘 전달될 때 경기장에서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고, 선수들의 좋은 모습이 역으로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다. 하나의 마음으로 원 팀이 된 것이다. 비디오 미팅이나 식사 자리에서 스스럼없이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냈던 경험이 있다.

짧은 회고 : 상무의 과거와 미래

과거에는 선수 경력에 상무팀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컸다. 당시는 복무 기간 자체가 2년을 넘기도 했지만, 40세가 가까이 선수생활을 하는 요즘과는 달리 선수들이 30대 초반만 되어도 은퇴를 고민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거에는 선수 경력에 상무팀의 비중이 크다 보니, 부상을 피하기 위해 제 기량을 발휘하지 않는 선수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상무팀을 재기의 발판 또는 성장의 시기로 여기고 기대감과 함께 입대하는 선수들이 많아졌다. 상무에서 기량 발전을 통해 국가대표 발탁 혹은 해외리그 진출을 이뤄낸 선수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랜 기간 상무팀을 이끈 지도자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상무

팀 입단을 프로 경력의 걸림돌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량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된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나는 K리그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리그가 되기를 바라며, 상무 또한 K리그의 일원으로서 세계적인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팀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재임기간 프리미어 리그(PL)와 라리가(LaLiga) 경기를 자주 보며 세계적인 감독들이 어떤 축구를 하는지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내가 원하는 전술은 경기 자체를 장악하는 시스템이다. 맨체스터 시티의 펠 과르디올라 감독이 구현하는 축구가 가장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다. 점유 뿐 아니라 득점도 많이 할 수 있는 공격적인 팀, 상대의 플레이 스타일과는 무관하게 상대가 누구든 주도할 수 있는 팀을 완성시키고 싶었다. K리그 내 특히 빛나는 재능들이 모이는 팀인 만큼, 우리가 K리그 내 전술을 선도해야 한다는 이상향을 품었다.

하지만, 한해가 지날수록 여러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며 차츰 타협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 매우 아쉽다. 현실에 타협하는 스스로를 발견한 것이 상무팀을 떠나려는 결심에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작년 FIFA 월드컵에서 상무 출신 선수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많은 보람을 느꼈다. 상무팀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수들의 기량 발전과 유지에도 역할이 있다. 상무팀의 경쟁력이 곧 K리그와 국가대표팀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현재는 소수의 선수들만이 상무팀의 기회를 얻지만, 향후에는 정원 확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더 많은 저연령 선수들이 일찍이 상무팀에서 기량을 꽃피워 소속팀에 돌아간다면, K리그 전반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김태완 위원 프로필

2002	상무 축구단 코치
2003~2010	광주상무 불사조 코치
2011	상주상무 피닉스 코치
2011.07	상주상무 피닉스 감독대행
2012	상주상무 피닉스 코치
2013~2016	상주상무프로축구단 코치
2017~2020	상주상무프로축구단 감독
2021~2022	김천상무프로축구단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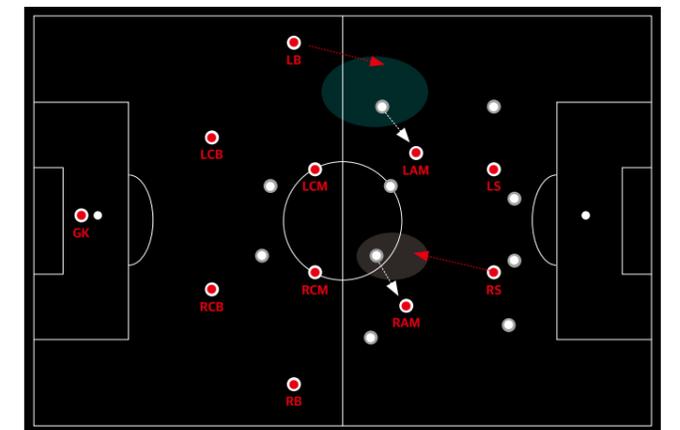


더욱 완성된 '4-2-2-2', 경남FC는 K리그1을 향해 순항중

어느덧 설기현 감독이 경남FC에 부임한지 4년차가 됐다.
아산무궁화 시절부터 사령탑에 올랐던 박동혁 감독을 제외하면 현재 K리그2 최장기 부임 감독이다.
설기현 감독은 2년차인 2021년에 6위에 그쳤지만, 2020년과 2022년에는
승격 문턱까지 도달하며 팬들에게 기대감을 선사하기도 했다.



경남의 4-2-2-2 공격 형태



경남의 4-2-2-2 형태. 누가 경남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수비하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공간이 달라진다.

경남 4-2-2-2 형태의 기본 골자

경남은 이번 시즌에도 작년에 활용했던 4-2-2-2 대형을 기조로 한다. 지난 시즌과 대형적으로 큰 변화는 없다. 여전히 백4를 기반으로 한 경기 스타일을 선보이며, 수비시엔 두 공격형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내려온 4-4-2 대형을 형성한다. 설기현 감독은 부임 2년차인 2021시즌 초부터 이러한 4-2-2-2 형태를 활용했으며 경남에 확고한 전술 색채를 주입했다.

비-미드필드 라인 사이 지역에 공간을 만들어낸다면, 두 공격형 미드필더가 그곳에 위치해 전진 패스를 받아낼 수 있게끔 한다. 이 두 선수는 상대 미드필더 라인 사이사이에 위치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남은 2선에 위치한 두 공격형 미드필더가 어느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패스 옵션을 누린다. 이에 대한 상황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공격형 미드필더에게 마크가 없는 경우 - 손쉬운 전진 패스 ▲상대 중앙 미드필더가 수비하기 위해 처진 경우 - 2톱에게 한 번에 향하는 전진 패스 ▲상대 측면 미드필더가 수비하기 위해 안쪽으로 향할 경우 - 윙백이 전진해 전방 공간 확보. 경남은 4-2-2-2 대형 속에서 이 3가지 옵션 활용에 대한 훈련과 인지가 매우 잘 되어있는 팀이다. 선수 각각이 언제 어디에 공간이 생기지는지를 매우 잘 알고 있다. 경기 중 특정 지역에 공간이 발생했을 때 이곳으로 빠르고 정확한 볼을 보낼 수 있다는 의미다. 경남은 이러한 전술적 약속을 통해 상대 수비에 끊임없는 딜레마를 안겨왔다.



경남은 1선에서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패스 옵션을 제공한다.

더욱 간결해진 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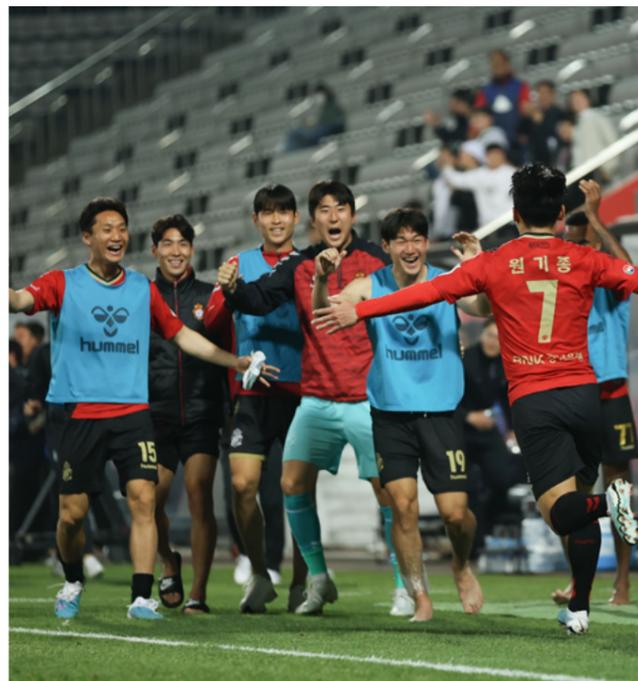
지난 시즌과의 차이점이라면 경남의 전반적인 공격 전개가 더욱 빠르고 간결해졌다는 것이다. 4-2-2-2 형태 자체는 지난 시즌과 비슷하나, 그 안에서 추구하는 공격의 선이 더욱 굵어졌다.



드업 상황에서 양 윙백이 점유하는 위치도 작년에 비해 높아졌다.

경남의 이러한 변화는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즌 경남은 작년에 비해 '점유율', '시퀀스당 평균 패스', '시퀀스당 평균 시간' 지표에서 모두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 볼을 소유하는 시간 자체가 줄어든데 더해 그 연결성마저도 더욱 열어졌다는 뜻이다. 이번 시즌 경남은 전방에 공간이 발생한다면 중원을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볼을 연결하는 장면이 많아졌다.

특히 백4 라인에서 1선으로 한 번에 향하는 공격 장면이 많아진 추세다. 경남은 본래 1선에 위치한 4명의 선수들이 서로 공간을 만들어주는 데에 뛰어난 팀이다. 대개 공격형 미드필더가 상대 수비를 특정 지역으로 유도한다면 톱 자원이 이에 상응하는 공격 옵션을 얻는 형태다. 2선으로 내려와 볼을 받아낼 수도 있고, 또는 측면으로 잘라 들어가 뒷 공간을 파고들 수도 있다. 핵심은 1선에서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 전진 패스 옵션을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이번 시즌 경남은 이러한 1선 활용을 보다 직선적인 형태로 이뤄내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영상 속의 천안전 공격 장면을 보자. (67분) 경남의 센터백이 바로 옆 선수에게 볼을 건네받은 상황. 천안의 공격수가 볼을 받은 경남의 센터백을 측면 쪽으로 몰아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전방에서는 경남 두 선수 간의 역방향 움직임을 통해 공격수의 침투 루트가 마련됐기 때문에, 경남의 센터백이 볼을 받은 직후 1선으로 빠르게 전진 패스를 연결하는 것이 가능했다. 중원을 활용하지 않고 선 굵은 패스를 통해 전방으로의 공격



전개에 성공한 것이다.

경남의 공격수들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플레이 스타일을 맞춰가고 있는 중이다. 그레이슨은 190cm의 타겟맨이지만 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침투도 시도한다. 미란징야와 설현진은 공격 진영에 속도감을 불어 넣어주는 선수들이며, 원기종은 이번 시즌 2톱 자리에 주로 출전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빌드업 과정에서는 양 윙백을 더욱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이 잦아졌다. 경남은 빌드업 시 기본적으로 2명의 센터백과 2명의 미드필더를 통해 공격을 전개하는 팀이다. 포메이션에 따라 4명의 선수들이 사각 대형을 형성하나, 경기 중 미드필더가 후방으로 내려온 백3 대형을 지속적으로 오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 경우 센터백이 좌우 폭을 확보하여 양 윙백이 높은 지점으로 전진할 수 있다. 경남은 지난 시즌에도 이러한 형태를 꾸준히 보여왔다. 눈에 띄는 점이라면, 지난 시즌에 비해 빌드업 단계에서부터 보이는 양 윙백의 공격성이 더욱 짙어졌다는 것이다. 경남의 양 윙백은 언제든지 높게 전진해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타격할 체비를 보였다. 경남의 측면 미드필더가 상대 라인 사이

지역에서 볼을 받아내려는 시도를 보이기 때문에, 상대 윙백이 이에 묶인다면 자유롭게 뒷공간을 파고들 수 있다.

핵심은 후방 중앙에서의 '선 굵은 패스'를 통해 이러한 윙백의 침투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윙백의 측면 침투가 위협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상대가 중앙 지역에 수비 진영을 형성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윙백이 상대 윙어의 시야 뒷편에 위치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경남의 윙백이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침투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즌 경남은 후방에서의 선 굵은 패스를 통해 윙백의 공격 가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지난 겨울 경남과 1년 재계약을 맺은 설기현 감독은 "지난 3년 간 경쟁력 있는 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제는 결실을 맺을 때."라고 언급했다. 개막 이후 두 달간 경남이 보여준 모습은 구단과 감독의 3년이 단순히 동행을 넘어 동반 성장의 시간이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어느덧 프로무대 초짜 감독에서 K리그2 베테랑 감독이 된 설기현 감독이 올해는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까.



2023 K LEAGUE
TECHNICAL REPORT
TSG MONTHLY
MAGAZINE



K LEAGUE